

태블릿PC 환경에 최적화된 웹사이트의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

Improvement of user interface design optimized for tablet PC environment

오 형 용, 민 병 원, 오 용 선
목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Oh Hyoung-Yong, Min Byoung-Won, Oh Yong-Sun
Mokwon University

요약

웹표준 준수가 미비한 국내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자유로운 인터넷 서핑이 어렵고, 국내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사용성이나 접근성 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접속시 사용성 및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를 제안함으로써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웹사이트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인 (주)링크소프트의 웹사이트에 적용하여 향후 기업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유저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적용방향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I.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도입/확산과 더불어 iPad와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PC의 보급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바일웹은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모바일 2.0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새로운 단말과 플랫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리고 모바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1]. 애플 iPad의 성공이 보다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인터넷과 웹 이용이 PC환경과 더욱더 유사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2].

모바일웹(Mobile Web)은 말 그대로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충칭하는 말로서, 무엇보다 웹 표준 기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웹 표준과 더불어 좋은 설계와 사용성, 접근성은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작업하면서 고려해야 할 영역이고, 접근성이 높게 만든다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4].

하지만, 국내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PC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통한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개발자들은 사용성이나 접근성 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에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접속시 사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블릿 PC 환경에서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안함으로써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모바일웹 환경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대상인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에 적용시켜보았다.

II. 본론

1. 태블릿PC 환경에서 모바일웹 유저인터페이스

태블릿PC는 단말기의 하드웨어적인 제약이 있지만, Wi-Fi 및 3G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접근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모바일웹은 데스크탑 PC에서 보여지는 웹사이트와 언뜻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웹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는 웹사이트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비해 태블릿PC는 비교적 넓은 스크린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스크탑PC에서 보여지는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이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Flash영역은 iPad환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는 사용편의성, 명확한 시각적인 구조, 가독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5].

2. 웹사이트 분석

현재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초기화면에서 메인이미지 부분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 사이트 리뉴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없고 페이지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메인이미지가 (주)링크소프트를 대표하는 기업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네비게이션 및 메인이미지는 Flash로 제작 되어있기 때문에 iPhone이나 iPad에서는 제대로 보여 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심플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초기화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서브페이지를 계속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제이콥 닐슨은 이러한 현상을 기업 사이트들이 웹을 네트워크 경제에서 비즈니스 수행 방법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온라인 브로슈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

3.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



▶▶ 그림 1. 개선된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 초기화면

그림1은 현재 개발중인 (주)링크소프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이다. 새롭게 개편하는 사이트는 디자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며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1의 ①영역은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으로 회사의 주요사업내용을 이미지와 간단한 내용으로 롤링시켜서 고정된 이미지의 사이트가 아닌 변화하고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영역은 블로그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신규로 구축된 사업이나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을 이미지와 간략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초기화면에서 사용자가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태블릿PC 사용자들은 초기화면에서부터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이트의 홍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이콘들을 업데이트되는 개별 항목에 포함하였다. ③영역은 링크소프트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이트와 사용자들간 효율적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III. 결론

태블릿PC의 빠른 보급은 사용자들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도 예전에 비해 사용성이나 접근성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려한 디자인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접속이 원활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태블릿PC환경에 최적화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사용자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 환경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사용자의 행태분석과 요구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전중홍, “차세대 모바일웹 표준과 미래”, TTA Journal No.128, pp 61, 2010년 3월.
- [2] 전중홍, 이승윤, “모바일웹 2.0과 모바일OK 표준화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2권 제6호, pp 88, 2007년 12월.
- [3] 이승윤, “모바일 웹과 스마트폰”, TTA Journal No.128, pp 21, 2010년 3월.
- [4] 앤디 클락, 웹디자인 2.0 고급 CSS, pp 12, 에이콘출판사, 서울, 2008.
- [5] 음소은,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레이아웃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pp 19, 2010년 2월.
- [6] Jacob Nielsen, “사용하기 쉬운 웹사이트가 성공한다”, pp15, 안그라픽스, 2001.